

새해 아침에...



희망찬 戊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회원사 임직원, 그리고 國軍將兵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함께하기를 祈願하며 그간의 勞苦에 대해 깊은 感謝와 慰勞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8年 새해는 國家的으로 볼 때 世界人의 大祭典인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며, 새로 選出된 大統領을 中心으로 平和的 政府 移讓을 이룩하여 民主發展을 圖謀하는 重且大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항상 北韓共產集團이 赤化南侵野欲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挑發을 자행하여 왔음으로, 올해도 韓半島의 平和를 威脅할 것으로 展望됩니다.

따라서 우리 防衛産業 從事者들은 國家安保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힘써, 尖端高度精密裝備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自主國防을 위한 戰鬪力 向上에 기여함으로써 祖國平和의 尖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防衛産業振興會는 지난 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防衛産業의 經營合理化와 生産性 向上을 推進하고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는 데 一翼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民間베이스의 海外協力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6년 美國에서의 1차 회의에 이어 昨年에는 美國의 79개 방위산업체와 國內방위산업체가 참석한 '87 韓美防産會議와 展示會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韓國防衛産業의 現住所를 紹介하고 兩國 방위산업의 육성과 共同技術協力を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그 結實을 바탕으로 우리 防産業界는 금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經濟的인 戰力增強計劃의 遂行에 역점을 두는 한편, 高度技術의 연구개발을 加速化하여 部品 國産化 促進과 獨自의 武器體系開發에 노력하는 동시에 對外競爭力 提高와 해외협력력을 통한 輸出增大에 힘써, 금년을 방위산업의 일대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邁進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國防과 技術>誌가 금년으로 創刊 10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科學敎養誌로서 海外的 武器體系와 방위산업계의 技術情報 등을 소개하여 國內 방위산업의 발전에 微力하나마 기여하여 왔다고 自負하며, 계속하여 알찬 내용을 담아 여러분의 同伴者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만큼 成長시켜주신 관계기관, 집필진, 애독자 여러분께 感謝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祈願합니다.

1988年 1月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 長